

제7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안전맵핑(Mapping) 활동결과보고서

접수번호	CHT0691
------	---------

제목	성남금융고 안전지킴이 TMI
----	-----------------

1. ※ 교·내외 안전 위협 요소 전체 지도(총 1-2쪽)

<성남금융고 안전 위협 요소 전체 지도>






- ① 튀어나온 대리석
- ② 먼지와 전선이 영킨 환풍기
- ③ 받침이 깨진 소화기
- ④ 튀어나온 구조물
- ⑤ 널브러진 전선
- ⑥ 올라서기 쉬운 신발장
- ⑦ 양방향으로 열리는 문
- ⑧ 깨진 유리창
- ⑨ 깨진 보도블록




제7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안전맵핑(Mapping) 활동결과보고서

2. ※ 안전 위험요소별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과정
 ※ 개선방안을 공유하거나 제시하여 환류 또는 실제 개선되는 과정
 ※ 위험요소별 지도 및 활동사진 포함(총 8쪽 내외)




〈안전 위험요소별 위험요인과 개선방안 제시〉

번호	위험요소	위험요인	토론을 통한 개선방향
①	튀어나온 대리석 	- 불필요한 자리에 튀어나온 대리석으로 인해 지나가다가 부딪힐 위험이 매우 높다.	◆ 경고띠 부착 명시성이 가장 높은 검정색과 노란색을 이용한 경고띠를 부착하여 위험구조물의 위치를 알린다.
②	먼지와 전선으로 영킨 환풍기 	- 오랜시간 청소하지 않아 먼지가 두껍게 쌓여 스파크가 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 분리 청소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먼지를 제거하며 청소 시 분리하여 팬 및 전선 주변의 먼지를 제거한다.
③	받침이 깨진 소화기 	- 큰 문이 닫히지 않게 고정하고 있다. 급히 소화기를 사용할 때 문이 닫혀 다칠 수 있다. - 소화기 받침의 깨진 부분에 다리나 손이 베일 수 있다.	◆ 문 고정장치 부착 ◆ 소화기 받침 교체 받침대를 바꾸고 문 고정하는 것은 폐박스에 이면지를 넣어 무겁게 만들고 고정한다.

제7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안전맵핑(Mapping) 활동결과보고서

<p>④</p>	<p>튀어 나온 구조물</p> 	<p>- 튀어나온 방화문 손잡이, 사용하지 않는 못, 튀어나온 방화문 자물쇠 등 부딪힐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 (찰과상, 파상풍 등)</p>	<p>◆ 사용여부 확인하여 미사용 시 제거 ◆ 말랑한 재질의 씌우개 부착 사용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미사용 시 제거하며 미제거 시 말랑한 씌우개를 준비하여 부착한다.</p>
<p>⑤</p>	<p>널브러진 전선</p> 	<p>- 합선 위험이 있음 - 학생들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 발생 우려된다.</p>	<p>◆ 전선정리함 설치 ◆ 타이벨트로 선을 정리한다.</p>
<p>⑥</p>	<p>올라서기 쉬운 신발장</p> 	<p>실내화 보관함 용도로 만들어진 신발장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며, 학생들이 발을 딛고 올라가서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고 밖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등 위험한 행동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추락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p>	<p>올라서기 쉬운 신발장에 오르지 못하게 함 ◆ 학생들의 작품 전시 공간으로 활용 ◆ 다육이 식물을 배치 ◆ 책장으로 활용</p>
<p>⑦</p>	<p>양방향으로 열리는 문</p>	<p>- 들어가는 사람과 나오는 사람의 사인이 맞지 않을 경우 충돌사고가</p>	<p>◆ 안내문구 부착 '미세요/당기세요' 스티커를 부착한다.</p>

제7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안전맵핑(Mapping) 활동결과보고서

		<p>실제 자주 일어나고 있다.</p>	
<p>⑧</p>	<p>깨진 유리창</p> 	<p>- 베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p>	<p>◆ 주의 팻말 설치 임시적으로 주의 팻말을 설치하고, 깨진 유리창을 교체한다.</p>
<p>⑨</p>	<p>깨진 유리창</p> 	<p>- 깨진 틈 사이로 발이 끼어 걸려 넘어질 수 있음</p>	<p>◆ 틈 메꾸기 시멘트로 깨진 바닥을 채워 메꾼다.</p>

-

- <구체적 개선방안 제시>

① 튀어나온 대리석



<안전띠 부착하기>

제7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안전맵핑(Mapping) 활동결과보고서

⑥ 올라서기 쉬운 신발장



<다육이 식물 놓기>



<안전띠 부착하기>



<미술작품 전시하기>



<책꽂이로 활용하기>

제7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안전맵핑(Mapping) 활동결과보고서

⑦ 양방향으로 열리는 문



<미세요/당기세요 스티커 부착하기>

⑨ 깨진 보도블록



<빈틈 모래로 채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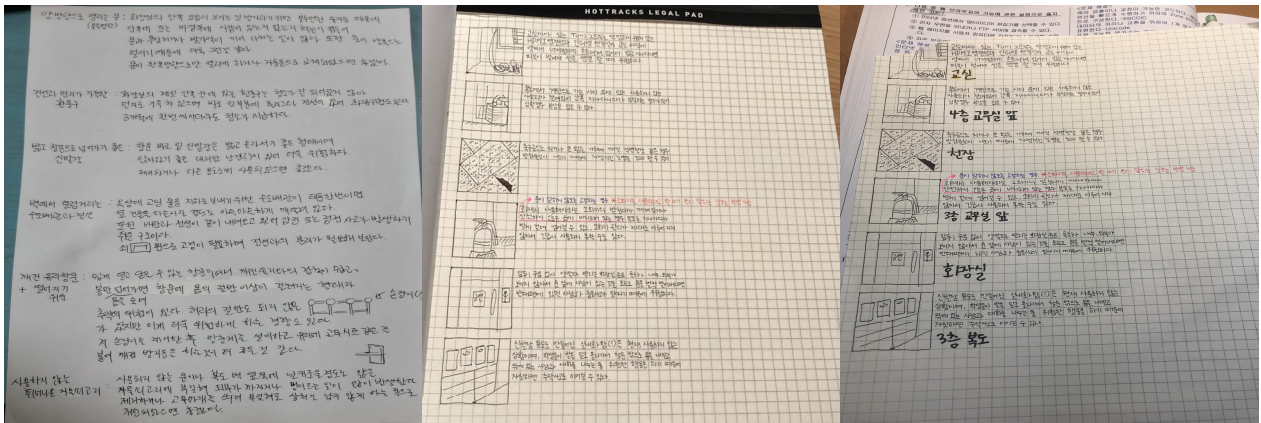
제7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안전맵핑(Mapping) 활동결과보고서

3. ※ 전체 진행한 과정 ※ 활동사진 포함(총 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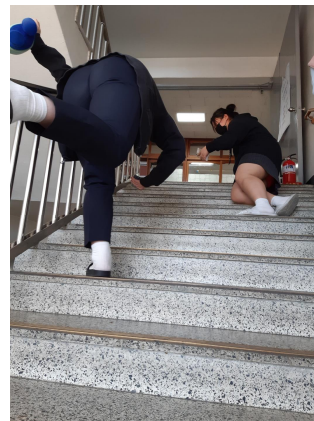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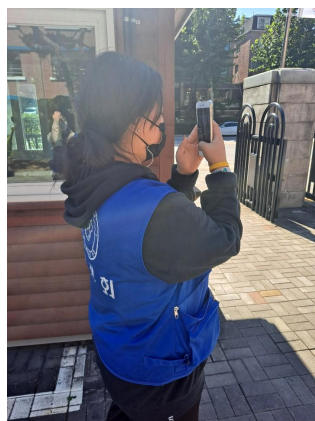
<전체 진행 과정>

- 우리들의 흔적

학교를 구석구석 관찰하며 사진을 찍고 서로 토론하여 이제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학교안전을 조사하면서 학교안전의 중요성과 관심이 생기게 되었다.



<토론하면서 작성한 스케치와 글들>



<정보 수집을 위해 사진 찍는 모습>

<실제 사고 연출 사진>

<느낀점>

[안일한 경각심]

이번에 맵핑을 하게 돼서 학교를 돌아다니며 친구들과 학교 구석구석 사

제7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안전맵핑(Mapping) 활동결과보고서

진도 찍고 눈으로 보다보니 생각보다 쓸데없는 것과 위험한 것이 정말 많은 것 같았다. 평소에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던 것과 이젠 위험하지 않겠지 했던 것들도 만약 이렇게 쓰인다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킨 전선이나 깨진 유리와 같은 것은 보기에 위험해 보이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아 더 충격적 이었다.

[디자인과 가까워지다]

이에 대해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게 되면서 멀다고 생각했던 디자인적 사고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것 같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되었던 것들도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 그것을 어떻게 고치면 위험하지 않게 될까? 다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낀 것 같다. <김채민>

[협동성과 해결책]

친구들과 학교 안밖의 위험요소들에 대해 조사하게 되면서 학교 곳곳을 돌아다녔다.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많이 위험하다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전공과의 활동들과 연결하여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면서 디자인과의 특징에 대해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디자인의 중요성]

금융고등학교 안전맵핑을 제작하면서 학교폭력과 같은 정신적 신체적 폭력에서 벗어나는 것,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꼭 쓰는 것 또한 나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내가 다니고 있는 이 학교 안에서의 위험한 장치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을 느끼게 해 주었다.

디자인의 목적은 불편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공과목인 디자인 수업을 열심히 공부해 응용하여 안전 맵핑을 만들었다. 자료를 만들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협동심이나 디자인적 사고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 <정현지>

[뿌듯한 경험]

이번 안전맵핑을 만들면서...

제7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안전맵핑(Mapping) 활동결과보고서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여태까지 다니면서 교내에서 일어난 사고를 목격 한 적도 있고, 내가 사고 때문에 다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다치고 나서 “위험하니까 다음부터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이 것으로 끝내고 그 다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나의 이런 생각으로 다음 부상자가 더 연이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안전맵핑을 만들며 이제 와서 깨닫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부상자가 나오지 않게 위험한 곳들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나하나 안전하게 보완해 나가며 개선된 환경을 보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새로운 경험과 기회]

평소에 깊게 생각 하지 못하고 “어? 위험하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간 곳들이 나의 학교생활에서 정말 위험했던 곳이었는데 익숙해지면서 내가 정말 무뎠다고 느낀다. 흔히 말하는 안전불감증과 같다, 설마 사고가 일어날까라는 생각에 위험하게 다니고 있던 나를 되돌아보면 정말 후회스럽기도 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정말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었다. <박서경>